

*Ask Rooted: How Do You Structure Your Youth Ministry in the Asian American Church?
(Part II)*

Rooted에 물어보세요: 아시아계 미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조직화하나요? (파트 II)

Rooted believes the best ministry creatively and winsomely communicates the gospel in each church's unique setting. We asked our Rooted writers how they disciple teenagers, partner with parents, and integrate the generations in their Asian American and Asian immigrant churches. Whatever your own context in youth ministry, we trust their answers will be edifying as you serve teenagers.

Rooted는 최고의 사역은 각 교회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창의적이고 쾌활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Rooted의 저자들에게 아시아계 미국교회와 아시아계 이민 교회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부모들과 함께 협력하고, 세대를 융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상황이 어떻든지 이들의 답변이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매우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ign up to join us for our next Rooted Webinar on March 22 at 1:00 CST on a related topic: "Gospel-Centered Ministry to Asian American Teenagers." Host Clark Fobes will lead a conversation with panelists Danny Kwon and Connie Nelson about leveraging **Rooted's five pillars for youth ministry** to Asian American teenagers and their families. We'll take time to brainstorm together as well as for Q&A.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중심 사역"이라는 주제로 3월 22일 오후 1시 (미국 중부 표준시)에 열리는 다음 Rooted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신청하기 바랍니다. Clark Fobes가 사회를 보고 Danny Kwon과 Connie Nelson이 청소년 사역을 위한 Rooted의 5대 사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질의응답 시간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Justin Wong, Youth Pastor at Chinese Baptist Church in Houston, TX

Justin Wong,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침례교회의 청소년 사역 목사

When our students and leaders came back following the Covid shutdowns, our goal was simple: first, to teach the basics of the gospel and second, to model basic ecclesiology (what it means to be the church). We wanted to invite everyone to rest in the finished work of Jesus and to belong.

코비드 폐쇄 조치 이후 학생들과 리더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목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첫째,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 둘째, 기본 교회론을 규범으로 삼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의 의미).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 분께 속할 수 있도록 모두를 초대하길 원했습니다.

Our first priority for all youth, leaders, and parents was to push them to corporate worship before anything else. We supplemented corporate worship with second hour Sunday discipleship group time in which students had a chance to decompress and reacclimate to our church community. We also offered Friday night courses to address the theological training aspect of their discipleship. Last year we used a mix of our own curriculum with supplemental podcasts and books. Lastly, we used events (outings, meals, camps, and retreats) to round out the discipleship process through relationship building.

모든 청소년, 리더,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회중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압박감을 덜 받고 교회 커뮤니티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주일 오후에 제자훈련 그룹 시간으로 회중 예배를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의 신학 훈련 측면을 다루기 위해 금요일 저녁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함께 팟캐스트와 다른 책들을 보충하여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을 통해 제자훈련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소풍, 식사 교제, 캠프와 수련회 등의 행사를 활용하였습니다.

One practical aspect of thinking through ministry within our Asian American context is to consider what we teach in Christian education. There are two (maybe three) layers to think through: First, what the parents are learning (dependent on our Chinese pastors), second, the doctrinal/theological foundational elements for the youth (dependent on children's ministry formation before students arrive in youth group), and third, the cultural/worldview context elements (i.e. sexual ethics, identity, race, etc.).

아시아계 미국인 맥락 안에서 사역을 고민할 때 실천적인 측면 중 하나는 기독교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어쩌면 세 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중국계 목사들에 따라) 부모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학생들이 중고등부에 올라오기 전에 받은 어린이 사역의 구성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진 교리적/신학적인 기초 요소들이며, 셋째는 성 윤리나 정체성, 인종 문제에 대한 문화적/세계관 문맥의 요소입니다.

Structurally we've had to shift our formal Christian education component to Friday nights rather than doing traditional "Sunday school." We realized many of the students coming on to our group on Sundays were not yet Christians; therefore we needed more

heart-to-heart engagement during that time of the week rather than passive engagement in classroom lecture.

구조상으로 공식적인 기독교 교육 구성을 주일 학교에서 금요일 저녁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주일에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많은 학생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강의 형식의 수동적인 참여보다 주중에 더욱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참여가 필요하였습니다.

Connie Nelson, Young Adult Leader at Edmonton Christian Community Church in Alberta, Canada

Connie Nelson, 캐나다의 알버타에 위치한 Edmonton 크리스천 커뮤니티 교회의 청년 사역 지도자

Our college fellowship meets weekly on Saturday nights, following a week-to-week rotation of three basics: 1.) Bible study, 2.) topical teaching on relevant issues, and 3.) time to meet in gender-specific groups. In addition to this rotation, there are also non-recurring events that are unique to the year, such as weekend retreats, outreach series, English-congregation-wide events etc.

우리 교회의 대학부 교제는 세 가지 기본 사항을 주별로 한 번씩 돌아가며 진행됩니다: 1) 성경 공부 2) 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별 교육 3) 성별에 따라 그룹별 교제. 이 외에도 주말 수련회, 봉사 시리즈, 영어 회중 전반 행사 등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해마다 고유의 행사들도 진행됩니다.

One of our biggest challenges is the absence of a full-time staff member dedicated to overseeing the fellowship. As a result, the org chart that I could draw you is honestly, a bit chaotic. In addition, student leaders are in short supply because many serve in multiple ministries of the church. The student leaders who do sign on need supportive discipleship in their roles. So it can be tricky for adult leaders to balance working alongside students and discipling them.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교제를 감독한 풀타임 스태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조직 구도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학생 리더들이 부족합니다. 또한 섬기기를 자원하는 학생 리더들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리더들은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see evidence of God’s work in the ministry. Many unchurched students who move to our area for higher education come consistently. We’ve been able to connect ‘older’ church members with the students by inviting them to come in and speak in panels on faith and Christian living. We’ve found that this is a great way for the older adults to show their care for the students that doesn’t require as much of a time commitment as signing on as counselors.

이와 동시에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상위 교육을 위해 우리 지역에 온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많은 학생이 교회에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 멤버들을 믿음과 그리스천 삶에 대한 토론 시간에 초대하여 이런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자리는 성인 교인들에게 상담자로 긴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Our main goal is to disciple students in the gospel so that long after they graduate, they are still walking faithfully with the Lord. It’s been a blessing to see graduates who were part of our community years ago come back as adult leaders, and to walk together in faith with grads that we now call friends.

우리의 핵심 목표는 학생들을 복음 안에서 훈련하여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했던 학생들이 후에 성인 리더로 돌아와 이제는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졸업생들과 신앙 안에서 함께 걷어가는 것은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Kai Chen, Youth Minister at West Houston Chinese Church in Houston, TX

Kai Chen,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West Houston 중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

Asian American teenagers are not so different from other American teenagers—but how they process and engage can often look different compared to the majority culture. You will rarely find an Asian American student in my youth group who is eager to speak up in a large group of 10 or more students, even though they have good ideas to share. So the lack of response and silence can be easily interpreted as a disconnect for the youth minister. But in reality, most of my Asian American students are internal processors who only feel comfortable sharing in smaller groups within established relationships.

아시아계 미국 십대들은 다른 미국 십대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참여하는지는 다수의 문화와 비교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안에서 열 명 이상의 그룹 세팅에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아시아계

미국 학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응의 부재와 침묵은 청소년 사역자에게 쉽게 단절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은 형성된 관계 안에서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여 내면적으로 사고를 먼저합니다.

This cultural observa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both small and large group settings. If we want to create any type of conversation and learning in our gatherings, it is almost always done in the context of small groups. On Sunday mornings, our students are each assigned to a small group depending on gender and grade. On Friday nights, while I may teach the large group as a whole, they are already sitting in small groups and we do a back and forth dance between the lesson and small group discussions. In baptism classes, mission trip training/debrief, student leadership training, adult youth worker meetings, and even parent gatherings, we always orient our discussions around small groups, giving students a comfortable space to engage actively rather than passively.

이런 문화적 관찰은 소그룹과 큰 그룹에 모두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모임 안에서 대화와 배움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면 소그룹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 우리 학생들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소그룹으로 배정됩니다. 금요일 모임에서는 큰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동안에도 이미 소규모 그룹으로 앉아 있어서 레슨과 그룹 토론을 번갈아 가며 진행합니다. 세례 교육이나 단기 선교 훈련이나 모임, 학생 리더 훈련, 성인 청소년 사역자 모임,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항상 소그룹에 맞춰 토론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소극적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편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